

1 본회 소식



2022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본회 권영걸(69용미) 회장은 지난 12월 8일 모교 예술복합연구동(74동) 오디토리움에서 진행된 졸업전시 우수자 시상식에서 베리타스미술상을 시상했다. 유망한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본회에서 2021년 제정한 베리타스상의 올해 수상자는 이채원(19동양), 우현준(21서양), 홍예준(17조소), 김재환(17금속공예), 이재현(17도자공예), 김해인(18시각디자인), 유희정(18산업디자인), 오지원(18영상매체) 학생으로 각 전공별 1명씩 총 8명이다. 본회는 2020년까지 졸업전시 동창회장상 수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나, 아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여 졸업 후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양한 동문들과 교류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동창회장상의 명칭을 '베리타스미술상'으로 변경하고 부상으로 '베리타스미술상전'을 개최해 수상자들에게 미술계 등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권회장은 수상 축하를 통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은 1946년에 국내 최초의 미술대학으로 설립되어 대한민국 미술교육의 모범을 보여 왔으며, 우리나라와 세계 미술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배출해왔다. 여러분은 졸업과 동시에 드디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이 되는 것이다"라며 졸업생들에게 모교 동문으로서의 자긍심과 동문의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어 이천 여명의 동문의 악력과 실적물을 수록하는 '서울대미술인 2023' 발간 계획과 온라인아카이브 구축, 빌라다르전, 서울미술나눔 아트페어, SNU장학기금마련 등 다양한 본회 사업을 소개하고 장차 동문이 되는 졸업생들의



동창회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내부 의논 끝에 이번 졸업전시 수상자들은 내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본회 기획전인 빌라다르전에 공간을 마련하여 특별 전시를 열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전시 계획을 밝혔다. 한편 본회는 지난 2022년 6월 포스코건설 더샵갤러리에서 2021 졸업전시 수상자 8인이 참여한 제1회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을 개최한 바 있다. 제2회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작가전은 권회장의 발표대로 2023년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많은 동문이 참여하는 본회 최대 전시 '2023빌라다르'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회장동정

▶순천정원박물관 명예홍보대사 위촉



고 교장인 권회장은 과거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부시장급)과 서울디자인재단 초대이사장을 지내며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스카이돔 등 200여 디자인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위촉=본회 권영걸 회장이 지난 12월 14일 순천만국제 습지센터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현재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및 서울에

▶택견인의밤 강의=권회장은 지난 12월 10일 충주 더베이스호텔에서 열린 '택견인의 밤' 행사에서 '택견이야기'로 강의를 했다. 권회장은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무술이자 예술인 택견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국민운동이 되도록 하자"며 이번 강연을 통해 택견의 원형을 보존하고 현대화할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D-Space 기초강연=권회장은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가 지난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DDP에서 개최한 세계 42개국의 디자이너들이 참여한 2022겨울 국제초대전&컨퍼런스 'D-Space'에서 1주제 기초강연을 했다.

▶디자인코리아2022 개막식참가=권회장은 지난 1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로 11월 23-27일 서울 aT센터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디자인산업전 '디자인코리아 2022' 개막식에 참석했다.

본회소식

후원회설립추진위원장 위촉



본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의 발전을 위한 후원회 설립을 위해 강인선(73회화) 부회장을 후원회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강위원장은 차사업을 하고있으며 사업을 통해 인연을 맺게 된 미안마에서 5년 전부터는 장로인 남편과 함께 자비랑(본인 자금으로 선교사업을 하는 것) 평신도 선교사로도 활동, 교회건축과 어려운 학생의 학습지원 및 구제사업을 하고있다. 이날 강위원장은 본회에 후원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장학기금마련전 수익금 1천만원 기부



'2022 서울미술나눔 SNU장학기금마련전'이 지난 11월 9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 마포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열렸다. 13일간 진행된 전시에는 40여명의 동문작가의 백여 점에 달하는 작품이 출품되었고 많은 서울대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본회는 수익금 중 1,000만원을 미대특지장학금으로 총동창회에 기부했으며, 이로써 현재 미대특지장학금 조성총액은 1억6400만원이 되었다. 본회는 미대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재학생에게 1년에 두 번, 학기당 5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에스아트플랫폼 임시총회 개최



본회는 지난 12월 8일 본회 산하 공익법인 에스아트플랫폼의 2022년 임시총회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상록회관 백악하늘에서 개최했다.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이사장으로 권영걸 현 이사장이 만장일치로 추대선출되었으며 신임이사로는 강인선, 김홍규, 민수정, 임영선, 황현수 회원이, 감사에는 김소선 현 감사가 선임되었다. 또한 본점 주소지를 그동안 광명구(84산업미술) 회원의 배려로 무료사용하고 있던 봉은사로 밤부빌딩에서 강남구 테헤란로 아남타워로 이전하기로 했다.

디자인-공예전 내년개최

그동안 회화조각 등 순수미술 중심의 전시회를 주로 개최해온 본회가 DESIGN&CRAFT전을 오는 2023년 6월 20일에서 28일까지 한전아트센터 갤러리 기획전시실(200평)에서 개최하고자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근래에 사회적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공예와 현대미술의 불씨가 되었던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번 전시는 디자인 공예 분야에서 활동하는 동문들은 물론 관람객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재학생 야식지원사업 성황리에 종료



본회는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졸업전시 준비하거나 학기말 과제로 인해 야간작업을 하는 재학생들을 위한 야식지원사업 '후배님들을 응원합니다'를 성황리에 마쳤다. 2019년에 시작했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중지되었다가 3년 만에 모교 학생회와 협력하여 실시한 이번 야식사업은 기간 동안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본회 서울대오피스(모교 50동 311호)에서 모교 재학생들에게 컵라면을 제공했다.

첫날 오전부터 포스터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8종의 다양한 컵라면을 보고 즐거워했으며, 소문이 퍼지면서 준비된 250개가 빠르게 소진됐다. 이후 매회 120여명의 재학생들이 방문해



사업기간 중 총 2000여개의 라면을 제공했다. 학생들은 추운 겨울 학교에서 작업하는 중에 생긴 이벤트를 무척 즐겁게 받아들이며 작업중인 동기, 선배들의 손을 잡고 삼삼오오 찾아와 바쁜 외중 잠시의 활력을 얻어갔다. 모교 학생회 김현수(20조소) 회장은 "미술 대학 특성상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들은 장시간 이어지는 작업에 지치기 쉬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뤄진 이번 야식사업은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동창회와 학부생이 교류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학부생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또한 이번 사업기간 내내 오피스를 지키며 학생들을 맞이하면서, 본회의 다양한 전시 및 사업을 소개하고, 소식지 구독을 원하는 학생들의 이메일주소를 받은 민수정(82회화) 사무국장은 "이번 야식사업은 학생들의 원활한 작업을 응원하는 동시에 본회와 모교 학생간의 결속을 다지는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모교소식

본회에 감사장



모교(학장 김성희)는 지난 12월 8일 서울대학교미술관 랙처홀에서 열린 '2022년도 전기 졸업작품전시회' 개막행사에서 본회 권영걸 회장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모교는 감사장을 통해 "그간 본회가 모교에 전달한 장학금이 학생들이 학업과 작업에 열중하고 세상에 나아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매년 2회 학과별로 1명씩 5명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또한 졸업전시 우수자 대상 베리타스미술상 시상, 야식지원사업, 학생회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방면에서 모교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OCAD미술학교 부총장 방문



모교는 지난 10월 11일 캐나다 OCAD미술학교와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캐나다 OCAD미술학교 부총장 Ana Serrano, 국제교류 부학장 Deanne Fisher, 국제프로젝트 관리자 Jennie Suddick, 국제 교환프로그램 코디네이터 Daniela Lee-Kim가 참석하여 학생 및 교수 교류, 국제 공동 전시 등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0-10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모교 서양화과는 지난 12월 8일 74동 예술계복합연구동에서 '서울대학교 10-1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멘토링시리즈를 기획하였다. 한방글(97서양) 동문이 작가 토크와 후속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본인의 작품세계와 작가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와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한동문은 현재 브루클린에 거주하며 CUNY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A.I.R. Fellowship, MacDowell Fellowship, 스코히건회화조각학교 등 아티스트 레지던시와 펠로우십 지원작가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내년 3월 뉴욕 Rubin Foundation에서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인공지능이 그리는 수묵화' 행사 성황리 종료



AI전문기업 한국딥러닝과 올빅데이터 기술공급기관으로, 모교와 경희대학교가 구축수행기관으로 참여한 올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한국 전통 수묵화 화풍별 제작 데이터 구축 수행 컨소시엄이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된 '인공지능이 그리는 수묵화' 성과 전시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한국 전통 수묵화 화풍별 제작 데이터 구축 사업은 한국 전통 수묵화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인공지능 미술시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마련해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수묵화 화풍 등의 전통문화가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 개발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해당 사업에서 구축 완료된 7000여 건의 수묵화 작품을 AI에 학습시킨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 전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모델이 그린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나만의 그림톡 만들기,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맞추기, AI 수묵화 포토컷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Art+Tech와 관련한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수묵화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국 전통 수묵화 데이터 구축사업'은 사업을 끝마치고 곧 민간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옥진동문 모교발전기금 1억기부



윤옥진(64조소) 동문이 지난 12월 2일 자제인 사회대학 이준환(90산디) 교수와 함께 모교에 방문해 미술대학 후학들을 위해 기부약정서를 쓴 뒤 발전기금에 1억을 기부하였다. 윤동문은 "우리 가족은 미래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지요. 내가 어디에 기

부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미래에 한다면 아이들 미래 발전기금에 하라고 하더군요. 감사한 마음에 누군가에게 그리 크지도 않은 금액을 기부하게 되었지요. 익명으로 한다면 이렇게 알려지게 되고 칭찬의 말씀을 들으니 송구합니다."고 하였다. 윤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회화를 전공하였다. 서울여중 및 창문여중교 교사, 대구공업전문대, 배재대, 충남대 강사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미술협회, 한울회, 숙련회 회원으로 활발히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윤동문은 모교와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동생 윤성진(72조소), 동생故윤혜진(75조소)과 부군 문범(75회화) 동문에 이어 아들 이준환(90산디) 동문과 며느리 전수진(92산디) 동문 등 또한 모교 동문이다.

도예전공 판매전 개최



모교 도자공예전공은 지난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교 52동 210호에서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2022 도예전공 판매전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판매전에는 재학생과 더불어 졸업 후 작가로 활동 중인 동문들 또한 참여하였으며, 로컬 브랜드 티 브랜드인 KEW&LEAVES와 협력해 방문객들에게 따스한 차를 제공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픈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한편 도예전공은 연말에 판매전을 개최하는 전통을 매년 지켜오고 있으며, 행사 수익금의 일부는 도예전공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되어 장학과 시설 확충 등 후학 양성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2학년도 전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작품 전시회

2022년도 전기 졸업생들의 졸업작품을 선보이는 2022년도 전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작품 전시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모교에서 개최되었다. 졸업전시는 학사 1차, 2차, 석박사로 나뉘어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동양화과와 공예과의 전시를, 학사 2차는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서양화 · 조소 · 디자인 · 영상매체예술 전공의 전시로 이루어졌다. 석박사 전시는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 미술관 전시실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올해 졸업전의 테마를 정하고 독특한 포스터나 행사를 병행한 졸업전시도 있었다. 동양화과는 '우리는 모두 동양화라는 한 점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것 뺄어나가는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다. 중요한 것은, 나아가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선다'는 의미의 'ORIENTED' 졸업전을 개최했다. 금속공예전공은 금속을 자르고 데우고 갈아내는 한 번의 손질을 한 줄씩 써내려간 교환일기처럼 기록했다는 의미로 '안녕? 오늘 우린'이라는 주제의 졸업전을 개최하였다. 도예전공은 졸업전시 기간 중 판매전을 열었다. 디자인과는 2020년부터 지속된 SNUDESIGNWEEK라는 이름 아래 'DOCUMENT'이라는 올해의 주제를 담은 전시를 진행하였다. 12월 9일에는 동문들이 다양한 주제로 진행하는 워크숍을, 11일에는 디자인과 동문 선배들을 모시고 졸업생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트래킹 아워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12월 17일과 18일에는 모교 49동과 ZOOM을 통해 각각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의 토크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세계인권헌의날 인권담화문 발표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은 지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총장 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19년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이래 서울대학교가,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을 공유하여 존중과 평등의 공간을 실현하고자, 지난 4년간 기울여 온 대학 인권 향상 노력의 일환이다. 오세정 총장은 담화문에서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면서 "우리 대학 구성원이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고히 하였다. 본 담화문은 "그동안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선진적인 인권환경이 서울대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기 기대한다."고 마무리하였다.

스타트업 인재 채용 박람회 '스누 매치포인트'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스타트업 인재 채용 박람회-스누 매치포인트'를 지난 11월 18일 글로벌 공학 교육센터(38동)에서 개최했다. 학생에게는 국내·외 우수 기업 탐색 및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스타트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다. 이번 박람회는 관악구 창업생태계 조성에 협력하고자 서울대 창업지원단, 관악구청, 낙성벤처창업센터 등이 공동으로 주관한 '관악S밸리 창업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진행됐다.

현대중공업그룹 AI포럼 공동개최



서울대학교는 지난 12월 6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현대중공업그룹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 분야 산학연 포럼인 '현대중공업그룹 AI포럼(HAIF)'을 개최했다. 포럼은 지난 9월 개설된 서울대 대학원 '스마트 오션 모빌리티' 과정 프로그램의 하나로, 정기선 HD현대 사장이 직접 기획했다. 자율운항, AI-스마트야드, AI-데이터, AI 3개 세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최해진 서울대 연구부총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국내외 산학연 AI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기선 사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조선·해양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새로운 50년에 AI가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해진 서울대 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이번 첫 AI 포럼이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모금전략 세미나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은 2022년 12월 2일 (금)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교내 단과대학과 병원을 비롯한 서울대 주요 기관들의 모금 활성화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모금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기금 및 모금을 담당하는 직원 등 5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행사는 발전기금 채준(경영대학 교수) 상임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현대 성균관대 대외협력처 부장의 '대학발전기금 기금모금 패러다임 전환' 배경식 법무법인 가온 본부장의 '유산기부 활성화 방안', 성시균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교육연구재단 사무국장의 '단과대학 모금사례 강연'과 분임 토론으로 이어졌다. 발전기금은 앞으로도 모금전략 세미나를 통해 서울대 주요 기관의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대학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기금 증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여자농구부 SUN, 2연속 클럽챔피언십 우승



서울대 여자농구부 SUN(썬)은 지난 11월 12일 강원 횡성에서 열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KUSF) 클럽챔피언십 여자농구 결승에서 연세대 여자농구부 '미쓰비'를 꺾고 2년 연속 우승을 쟁취했다. 처음으로 코치가 생긴 썬은 원래 강팀이 아니었다. 훈련은 열심히 했지만, "한두 명만 빠져도 흔들리던 기복 심한 팀"이었다. 그러나 지난 여름 MBC배 전국대학농구 여대부에 초청받아 출전하게 되자 한국여자프로농구연맹이 선수 출신 지도자인 이종애 코치를 파견하며 변화가 생겼다. 썬 선수들은 팀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학생이 겪는 '운동 단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어릴 땐 남학생과 섞여 운동해도, 자라면서 같이 할 사람이 없어지는 탓이다. 전예지(체육교육)씨와 김예은(조소)씨는 어릴 적 농구를 접했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시작했다. 체육관 문이 닫히면 썬은 남양주, 김포까지 가서 빈 코트를 빌렸다. 한편 썬 선수들은 팬데믹 이후 여자농구부 선배들과도 교류가 끊겨 어렵던 시점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 여자농구부 '라바'의 오세임(11성악), 강승표(94기계), 심연섭(95기계항공)동문에게 감사를 표했다.

제8회 휴먼튜브 영상 공모전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주관한 '제8회 휴먼튜브 영상 공모전' 상영회와 시상식이 지난 11월 2일 서울대학교 25-1동 103호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휴먼튜브 영상 공모전은 학생들이 당해 주제에 대한 3분 내외의 동영상(UCC)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장이다. 대상은 엘리스라는 인물이 가상 세계에서 현실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과정을 그린 '서브웨이, 애니웨이(Subway, Anyway)'(Pado)와 가상의 존재 매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싸우지만 결국 굴복하게 되는 모습을 담아낸 '매이'(에더다)가 공동 수상했다.

행정관잔디광장 이름바뀐다



서울대학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행정관 앞 잔디광장의 이름을 짓는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기존 '총장잔디' 등의 별명으로 불렸던 잔디광장의 새로운 이름의 후보로는 잔디광장, 사인광장, 느티마루 총 세 가지의 이름이 제안되었으며, 세 후보 중 최종 이름을 결정하는 현장투표가 지난 12월 14일 정오부터 잔디광장 양쪽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에 원하는 색상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거는 이벤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투표를 마친 학생에게는 커피와 쿠키 등의 간식을 제공하였다.

중앙도서관 온라인 테마도서관 전시 개최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관장 장덕진)은 지난 12월 1일부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전시 컬렉션에서 제3회 온라인 테마 도서관 전시'책으로 들여다보는 한류'행사를 개최한다. 전시 내용은 '한류의 정의와 지속적인 한류 발전을 위한 제언', '교수님 추천 도서 11선'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본 전시에 참여한 홍석경 교수는 지난 30년 이상 한국 대중문화, 그리고 '한류'라는 용어로 대표되는 문화현상의 의미와 구조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와 문화 콘텐츠가 함께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강화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문화가 함께하는 도서관'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전시는 본 사업의 일환인 '도서전'행사로 개최된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서울대학교 체육인의 밤에 장학증서 전달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는 지난 12월 1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10회 서울대학교 체육인의 밤에서 9명의 재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날 서울대내 37개 운동부 재학생 및 졸업생 200여명과 전현직 지도교수, 모교 여성성 교육부총장, 강준호 사범대학장, 박일혁 스포츠진흥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총동창회에서는 이경형 상임부회장과 이승무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총동창회는 올해 운동부에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날 최우수 운동부로 선정된 테니스부에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이 상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모범운동부원으로 뽑힌 농구부 김민재(20체육교육), 무용부 이예진(20체육교육), 육상부 김원우(21체육교육)·박다윤(22체육교육), 여자농구부 이래은(21체육교육), 축구부 조민기(21체육교육), 국공부 임종규(21언어), 스키부 이창훈(17기계항공), 수영부 최동수(18기계공학) 학생 등 9명도 장학증서를 받았다.

202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신년인사회

- 일 시 : 2023년 1월 13일 (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서울 소공동 소재)
- 행사내용 : 신년음악회, 신년인사 및 덕담, 유공 동문 표창, 오찬 등
- 참 가 비 : 5만원(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성명과 입학연도 표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비인상안내

총동창회는 2006년 이후 16년 동안 회비를 동결해왔는데, 십수년 전 책정된 회비로는 그동안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총동창신문 제작 및 발송, 각종 행사 및 회의 개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회비를 인상하여 2023년에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애정 어린 이해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회비인상 내용 (시행시기 : 2023년 1월 1일)

(단위: 원)

회원구분	현행 연회비	인상 연회비	비 고
고 문	100,000	현행과 동일	
자문위원	300,000	*	
명예회장	300,000	*	
회 장	5,000,000	10,000,000	
(상임)부회장	1,000,000	2,000,000	언론·비영리단체 활동 임원 10만원→20만원
감 사	300,000	현행과 동일	
논설위원	100,000	*	
특별과장·직능지부 동창회 분담금	200,000	500,000	
이사회원	100,000	150,000	평생회비: 만65세 미만 70만원→100만원 만 65세 이상 50만원→70만원
일반회원	30,000	50,000	평생회비: 만65세 미만 30만원→50만원 만 65세 이상 20만원→30만원

문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02-702-2233

서울대동문

봉사와 감사의 삶 변주선(60사대)



서울대총동창회 상임임부회장 변주선(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동문은 평생을 봉사와 베푸는 삶을 살았다. 특히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모두 주변에서 도와준 덕분”이라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특히 미술대학동창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변동문은 김인중(59회화)신부 후원회 빛섬포럼 회장, 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 독

서문화진흥회, 청소년지도자단체협의회 등 그가 관여하고 있는 단체는 이 밖에도 많다. 여든세 살의 나이에 외국출장을 다녀와도 집에 들르지 않고 곧장 병원으로 출근하는 그의 에너지에 대해 변동문은 “일을 열정적으로 즐기면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피곤해서 누워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할 정도다. 지금 아픈 곳도 없고 약도 먹지 않는다. 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을 했더니 50대 뇌 상태라고 했다. 끊임없이 아이 디어를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한 덕분이라고 한다. 변동문은 1940년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사대 부설고등학교와 1964년 서울대 사범대학 영어과, 1988년 연세대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2002년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과(보건학 박사)를 졸업했다. 1965년 선린중학교 영어교사를 하다 당시 군의관인 부군 김광태 현재 대림성모병원 회장과 결혼,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변동문의 걸스카우트 활동은 무려 50년이 넘는다. 자녀들도 모두 스카우트 활동을 했다. 1971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대외분과위원으로 걸스카우트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1986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국제분과 위원장, 1989년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대회 조직위원장, 1990년 한국걸스카우트연맹 부총재, 1993년 제28차 걸스카우트 세계대회 한국대표, 1993년 걸스카우트세계연맹 지원재단 세계이사와 특별연구위원회(광역연구위원회) 위원을 거쳐 1994년 제18대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에 취임했다. 이후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 의장, 아태지역 후원회와 친선회를 창립했다. 최근엔 아태지역 여성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변주선 리더십 펀드’를 설립했다. 변동문은 지난 6월 열린 말레이시아 걸스카우트 연차 총회에서 말레이시아 걸스카우트 발전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말레이시아 걸스카우트연맹의 최고훈장인 ‘THE SWIFT AWARD’를 수여받았다. 이밖에 2009년 서울대 사범대학 동창회장, 서울대총동창회 부회장,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한국에이즈연맹 고문, 한국마약퇴치본부 고문, 국민체육공단 이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이사, 한국병원경영학회 이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서울NGO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국민독서문화진흥회 부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 피천득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이러한 공로로 1996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비롯해 1996년 인도대통령 은코끼리상 국제청소년지도자상, 2001년 대통령 표창, 제11대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2002년 자랑스러운 연세보건인상, 2004년 제5회 김철란 여성지도자상, 2009년 제9회 비추미여성대상 해리상, 2012년 제11회 유관순상, 2015년 제7회 청관대상 공로상, 2016년 제18회 관악대상, 등을 수상했다. 현재 의료법인 다나의료재단 구로다나병원 명예이사장, 서울대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장, 빛섬포럼 회장,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 한국걸스카우트 지원재단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후원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12.1.-30)-가나다순

이 사 회 비	임수진(82회화)
일 반 회 비	김민주(01동양) 김 봄(05조소) 박민희(85동양) 박혜영(76웅미) 이용규(82회화) 황인선(94서양)
평 생 회 비	공성현(07디자인) 김인중(59회화) 소미정(10동양) 허희재(94서양)
후 원 금	강인선(73회화) 1,000만원
광 고 후 원 금	김소선(63조소) 20만원 정종미(76회화) 20만원 나성숙(71웅미) 20만원 디팩 14만원

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일호(88산미) 부친상, 2022년 12월 5일
우지희(91산디) 시부상, 2022년 12월 5일
정연두(88조소) 부친상, 2022년 12월 16일
박수용(90공예) 모친상, 2022년 12월 25일
유기원(74회화) 모친상, 2022년 12월 27일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 김홍도(98동양)

서울대미대동창회 홈페이지가 <http://snuarta.or.kr> 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 · 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 · 인사 · 수상 · 개업 · 결혼 · 부고 등 동정을 메일(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업체 소개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근조기 배송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서울미대동창회 E-NEWS 광고를 통해 기업,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1회	6회	12회
1/5면	10만원	50만원	100만원
1/3면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2면	30만원	150만원	300만원
전 면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후원광고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습니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입니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합니다.
자체제작한 포장지(발포지)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BOX 가격표(cm/坪)						미술품 포장지(발포지) 가격표			
호	가로	F(면물)	가격	P(평경)	가격	M(해경)	가격	사이즈	가격
1	22.5	15.8	5,000	14.0	4,500	12.0	4,000	60*80	5,5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100*80	6,6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00*130	8,8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150*125	13,2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140*170	14,3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50*190	16,5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 미술관 탐방

정종미갤러리

정종미(76회화)



지난 12월 12일 이민주 편집주간이 조용한 서촌 골목, 오죽이 심긴 중정을 품은 한옥공간 정종미갤러리를 찾아 정종미 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종미갤러리를 설립한 시기 및 목적은?

본 공간은 2013년에 본인이 명장들과 협력하여 손수 수리하였다. 2018년에 'Budda in Women' 전으로 개관하였고 전시, 세미나, 공연 등을 다수 진행하였다. KU Color Lab(고려대학교 부설 색채연구소) 재료학 강좌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카페 기능도 갖추었다. 전통과 현대, 과거와 미래, 동서의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화로운 공간으로서 다소 편향된 우리 미술문화가 균형과 조화를 갖추는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

갤러리 위치를 서촌으로 정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서촌에 들렀다가 이 지역에 마치 자석처럼 끌려서 살림집과 작업실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당에는 150살 정도 된 향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처음 본 순간 알 수 없는 교감이 일어났다. 이 나무를 살리기 위해 빌딩 대신 60년 된 적산가옥이 작업실로 재탄생하였고 살림집은 향나무와 어울리는 한옥으로 하였다. 이 땅의 기운에 이끌려 걷고 싶고 풍경이 자연스레 안기는 이 동네를 알게 되면서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최적의 장소임을 깨닫게 되어 갤러리 자리도 이곳으로 잡게 되었다.

갤러리를 한옥으로 지은 이유와 애로사항은?

우리의 아파트 문화가 보여주는 집 혹은 공간이란 것이 효율성 혹은 재화 가치로만 평가되는 것이 못마땅했다. 어떻게 보면 집은 제2의 '나'일 수 있고 나를 둘러싼 일종의 껍질, 껍데기라 볼 수 있다. 한옥은 숨 쉬는 공간이고 자연과 소통이 가능한 건축이다. 거주인이 지속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대신 4계절을 확실히 느끼게 해주며 나무가 주는 웰빙, 힐링의 맛이 있다. 집과 교감하는 삶이 아닌 일방적으로 편안한 삶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이고 그만큼 대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중공간이 공간 효율은 높으나, 좁은 공간이어도 나무의 온화한 덕을 느끼고 감상할 수 있으므로 한옥을 고집하였다. 애로 사항이라면 이전엔 나무에 칠하는 보호제인 국산 명유가 있었다는데 그 대가 끊어져 지금은 값비싼 수입제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한옥이 불편하고 춥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 10년째 한옥에 살지만 불편을 불편이라 느끼지 않으며 한옥이 주는 행복에 꼭 빠져있다.

관장으로서 가장 의미 있었던 전시는?

2018년 진행한 개관전 'Budda in Women'전이 인상 깊었다. 어릴 적 어머니와 많은 여성들을 보면서 여성은 가슴에 부처가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그 어린 생각을 전시로 옮겼으니 당연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진행중인 전시 '필과 매의 노래' 전 또한 뜻깊다. 이 전시는 인간문화재 유필무 필장님의 붓과 본인의 매화그림이 함께하는 전시이다. 유필장은 충북 인간문화재로 내년에 출간될 본인의 책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 미진사를 집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가난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평생 전통의 끈을 놓지 않고 인고의 삶을 살아가신 필장님의 불운은 그의 탓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다. 조금이라도 그 무게를 덜어드리고, 전통 붓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공방기금 마련전인만큼 필장님의 여생 동안은 지인의 창고 한 구석이 아닌, 자신의 공방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

지역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대한건축학회 회원들이 방문해서 갤러리 건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비전공자인 본인의 건축적 마인드에 대해 언급했을 때 큰 뿌듯함을 느꼈다.

갤러리를 개방하게 된 이유가 있는가?

갤러리 개방은 올 봄부터 시작하였다. 내년 2월 정년퇴직 후에는 연구소, 전시장 혹은 공연장 등등 다방면에서 문화적 놀이터가 될 것이다. 가까운 곳에 은사님이었던 박노수 화백의 자택이었던 구립 박노수미술관이 있다. 대학 때 세배를 드리러 처음 들른 후 자주 들렀던 곳인데 본인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장소이다. 본인도 은사님처럼 무엇인가 흔적을 남길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정종미갤러리를 통해 서촌이 아름다운 동네로 살아남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동문들을 위한 행사나 전시 계획이 있는가?

일반적인 동문들의 단순 모임 전시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다. 그런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많다. 또한 갤러리는 작가인 본인에게 부업이므로 왕성한 활동은 어렵고 분수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 갤러리의 성격에 맞는 전시라면 동문을 가리겠는가. 다만 갤러리 공간이 크지 않아 다수의 작가가 참여하거나 규모가 큰 전시는 어려울 듯하다.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교직에 있으면서 대학이란 곳에 기본적 상생의 인프라가 없다면 사회나 국가 등은 말할 것도 없지 않나 생각했다. 기본적인 상생의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프라란 상식적 사고체계나 공생을 위한 도덕, 윤리 등의 가치관을 말하는데 경제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더라도 앞서의 기본 인프라가 없는 사회는 취약할 수밖에 없고 그 여파는 모두에게 해당될 거라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서 후배들이 위와 같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종미갤러리

■ 주소 :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68-19

■ 전화 : 070-4141-1103 / 02-3290-2388

‘따뜻한 금속이야기’ 강연 김승희(65음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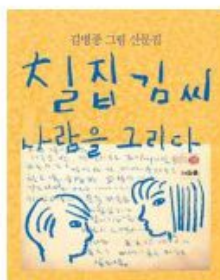
김승희 동문이 진행하는 강연 ‘따뜻한 금속 이야기_김승희 금속공예가’가 지난 12월 2일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공예박물관에서 개최한 것으로, 한국 1세대 금속공예가로 꼽히는 김동문을 초청하였다. 김동문은 민화, 십장생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금속으로 빚어 구현해내는 금속공예가로서, 차가운 금속성에 따스함을 느끼게 한다는 평을 듣는다. 이번 강연에서 김동문은 대학생 시절 수입 잡지 속 금속공예 사



전에 반해 금속공예에 뛰어들고 미국 유학을 떠나는 등 금속공예에 열정을 바친 경험 또한 풀어놓았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크랜브룩 미술대학에서 수학하고 인디애나 대학교 미술대학원 금속공예 전공 석사를 취득하였다. 이후 국민대에서 조형대학 금속공예 전공을 개설하고 36년간 전임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그림산문집 ‘칠집 김씨 사람을 그리다’ 김병중(74회화)

김병중 동문은 최근 그림 산문집 ‘칠집 김씨 사람을 그리다(너와숲)’를 펴냈다. 세상 풍경 뒤에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웃음과 눈물로 버무려 전한다. 그림과 글, 양 날개를 차고 오르는 ‘비익조(比翼鳥)’답게 산문의 탁월한 경지를 보여준다. 모교 학장을 지낸 김동문은 평생 가르치는 일에 봉직하면서도 세상에서 만난 모든 사람에게서 삶을 배우는 자세로 일관해왔음을 알 수 있다. 지난달 열린 ‘인천아시아아트쇼’에서 최고가 작품은 3억 원에 팔린 김동문의 ‘생명의 노래-화국산수’였다. 아트페어 최고가는 명예로운 일이지만,



법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그의 작품이 저평가됐다고 말한다. 동양화와 서양화의 경계를 넘어 우리 그림의 세계화에 앞장서 온 미술사적 가치가 더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동문은 김용준, 장우성, 서세옥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동양화과의 맥을 이으면서도 독자 화풍을 구현했다고 평가받으며, 어린아이가 뛰노는 것처럼 자유스러운 필치는 경계 없는 세상을 꿈꾼다. 그러한 자유 지향은 역사와 시대에 대한 실존적 고민의 해

대구미술관장 임용 최은주(83회화)

최은주 동문이 새로운 대구미술관 관장에 임용되었다. 이번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장 채용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됐다. 대구미술관운영 및 전시 개최 등 미술관 업무를 총괄할 최동문은 서울대 대학원 미술이론전공 석사이며 미술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최동문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5년간 학예연구실장, 보존관리실장, 덕수궁미술관장, 서울관운영부장 등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국립현대미술관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 대표 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관운영부장을 맡을



당시 서울관 개관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2015년 경기도미술관장으로 재임하며 조직 운영 능력과 통솔력을 인정받았으며, 다양한 창의적 전시들을 통해 미술관의 전시 역량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최동문은 “대구미술관이 대구의 문화적 전통과 현대적 진취성을 상징하는 기관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직원과 합심해 대구미술관의 30년 후, 100년 후를 위한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실직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예술, 가지다’ 출간 주연화(11박사미술경영이론)

주연화 동문이 미술품 컬렉션을 막 시작했거나 시작하려는 이들을 위해 펴낸 저서 ‘예술, 가지다’를 출간했다. 근래 들어 한국 미술시장은 ‘부의 세대이동’이 확산되며 젊은 컬렉터가 크게 늘었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해외연수와 유학 등을 경험한 MZ세대 컬렉터들이 기존과는 달리 자신의 예술적 취향을 드러내고, 수집한 그림을 자랑하며 국내 아트마켓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이번 저서는 새롭게 미술시장에 들어온 컬렉터들에게 작품을 고르는 눈을 키워주



기 위한 책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화랑인 아라리오갤러리와 갤러리현대에서 디렉터를 역임한 주동문은 미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가장 먼저 살펴보고 이를 전시로 꾸려 선보인 갤러리스트이자 한편으로 미술관과 기업의 관점에서 연간 약 100억원대의 작품구매를 담당하며 얻은 판매자와 구매자 양 측의 경험과 통찰을 책에 녹여 내었다. 한편 주동문은 모교 대학원에서 미술경영이론을 공부한 뒤 현재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종미 갤러리 기획 초대전

충북인간문화재 유월무 필장
공방설립기금마련 초대전

筆 (필) 과 梅 (매) 의 노래

후원광고

필과 매의 노래

22.12.16 - 23.1.8

11:00-6:00/수-일

정종미 갤러리

정종미 갤러리(KU Color연구소)
sosimhun@naver.com / 070-4141-1103
블로그 blog.naver.com/kucolor / 인스타그램 jungjongmee_gallery

해외영화제 각종상 수상 전승일(85서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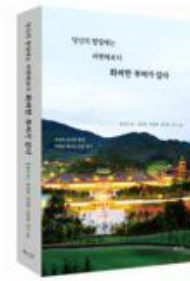
전승일 동문이 최근 5.18 광주민중항쟁을 주제로 제작한 단편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 A Boy of May'가 해외 영화제에 선정 및 수상실적을 내며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단편 애니메이션 '운동화 비행기'는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 당시 선전대 활동을 하며 5월의 참상과 시민들의 헌신적 저항을 직접 온몸으로 겪은 홍성담 화백의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아낸 '운동화 비행기'(2017 / 평화로움을책)의 원작 그림을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현재 인도에서 개최되는 히말라얀 두어스 글로벌 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했으며, 미국에서 개최되는 RWSS(Redwood Shorts & Scripts)에서는 '심사위원 특별언급' 상을 수상했고, 타고르 국제 영화제에서는 'Outstanding Achievement Award'을 받았다. 이밖에도 현재 베를린 아트영화 페스티벌 등 세계 각국 18곳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에 공식 선정되었다. 한편 전승일은 모교에서 서양화 학사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연극영화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계원예대, 동국대 겸임조교수 및 교수 외 스튜디오 미메시스 대표감독으로 활동하였다.

부여답사가이드 출간 최경원(86산미)

최경원 동문이 참여한 저서 '당신의 발밑에는 피렌체보다 화려한 부여가 있다'가 지난 12월 20일 북카라반에서 출판되었다. 디자인 연구자인 최동문이 각각 다른 전문분야를 가진 홍경수, 정길화, 김진태, 김수 작가와 모여 엮어낸 부여 답사 가이드이다. 여러 차례 부여를 방문하며, 부여가 가진 매력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 과정을 거쳐 로컬 콘텐츠를 만들었다. 최동문의 이번 저서는 동북아시아의 공예와 건축 혁명의 시발점이었으며, 문화예술의 수도였던 부



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산업디자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한국 문화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디자인을 위해 졸업 후 조교를 하면서 전국을 답사하였다. 최동문은 'Good Design', '우리 미술이야기' 등 열 서너 편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국민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강사로 재직하였다.

마카조아 신진작가상 수상 한현정(08동양)



한현정 동문이 '2022 마카조아 신진작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마카조아 신진작가상은 '마카조아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 새로운 미적 가치를 만들어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의 젊은 작가들 중 우수한 활동을 한 작가를 매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 지원 내용은 2회에



걸쳐 총 1000만원을 지원하고, 수상자는 1년 내 작품계획서를 제출하고 전시를 하며 작품은 (주)마카조아에 소유된다. 한편 어려운 암투병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한동문을 위해 지난 9월 모교 동양화과 교수 및 동문들이 모교에서 '한현정과 친구들' 전시를 가진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본회는 한동문의 초대전을 내년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서촌 B갤러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문없는집 밴드공연 손호진(17서양)

손호진 동문이 지난 12월 30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프리즘홀에서 열린 라이브공연 '랜딩에러'에 밴드 '문없는집'으로 참여했다. 우지원, 화노, 코토비와 함께 하는 이번 공연은 관객들이 세계여행을 하던 도중 불시착한 컨셉으로 진행된다. 각 팀들은 미리 나라를 정한 뒤 컨셉에 맞게 의상과 곡을 준비했다. 손호진 동문이 속한 밴드 문없는집은 세 번째 EP앨범 '한가로운 생각' 수록곡 및 다양한 곡들을 들려주었다. 한편 손호진은 모교 서양화과에 재학 중이던



2018년 서울대 중앙작곡동아리에서 만난 김민식·이힘·김소윤과 록밴드 '문없는집'을 결성했다. '문없는집'은 2018년 컴필레이션 앨범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F'로 데뷔 후 2019년 'Happy/happy/happy/life'와 '문없는집', 2020년 '밝은 미래', 최근 'Colors Of' 등 꾸준히 신곡을 발표해 왔다. 경계 없이 모두가 오갈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의 이름처럼 손호진 동문의 밴드는 신스팝을 기반으로 장르 간 경계가 없는 음악을 추구한다.



나성숙 옷칠 학교

(www.bukchonart.com 배움터)

2008년부터 시작하여 23기를 배출한 옷칠학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초반	기초가 없는 일반인 대상
2차수업	나전, 할배기법, 골회바르기, 흑칠하기
3차수업	두부고칠, 색옷칠 마연기법, 금박기법
심화과정	옷칠공방 운영자, 칠 전공자 연구반

시 간 화,금 오전 10시 -오후 1시

장 소 서로재(종로구 북촌로 6길 32-1)

원 서 www.bukchonart.com 배움터

수강료 월 33만원 (부가세 포함) 신한은행

(주)봉산서로재 140-010-776743

연 락 02-766-6649 nass@seoultech.ac.kr

북촌 한옥에서
나전 소반 만들기



후원광고

삼세대 서세옥(46회화/1929-2020)



서세옥 동문을 기리는 '삼세대 三代 Three Generations' 전이 지난 12월 23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20일까지 서울 이태원에 위치한 리만퍼핀 서울에서 열린다. 본 전시는 2020년 11월 향년 91세로 타계한 한국 수묵 추상의 대가 서동문을 기억하며 삼대를 아우르는 그의 가족 구성원들이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서세옥 동문의 혁신적인 수묵화 및 드로잉 7점과 그의 가족 9명의 작품을 병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서동문이 아들인 작가 서도호(81회화)와 건축가 서울호를 위해 그의 아내 정민자와 함께 광범위하게 조성한 창의적 환경을 회고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는 고도로 개인적인 프로젝트라 할 수 있으며, 연결성, 장소, 추억 등의 주제를 숙고한다. 특히 서로 다른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협력하여 합작한 작업은 창조에 대한 서세옥의 개방적, 실험적 접근이 삼세대에 걸쳐 전승된 것을 기리는 찬가이기도 하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를 졸업하고 1952년 제1회 국전에서 국무총리상, 1954년 제3회 국전에서 문교부 장관상, 1970년 제19회 국전에서는 초대작가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국미술가협회, 1960년 목림회의 창립위원으로 활약했고, 국전 심사위원 및 운영위원,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서동문은 40여 년간 모교 교수로 재직하며 한국 전통과 철학에 급진적으로 뿌리내린 아방가르드 운동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유인수초대전 유인수(66회화)



유인수(본회 명예회장) 동문의 초대 개인전이 12월 20일부터 23년 1월 5일까지 서울 후암동 Gallery U.H.M에서 열리고 있다. 유동문은 일상적 이미지와 그 속에 담긴 인간 내면의 모습을 추상적인 형상으로 표현한다. 획일화되어가길 거부하는 저항감을 도시의 성난갑 같은 획일화된 아파트와 창문을 매체로 하여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 속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개체의 모습은 제각기 하나의 생명체로써 움직이고 호흡하는 것과 같은 형상을 띠고 있다. 정지되어 있는 화면이지만 화면 속 도시들은 살아 숨쉬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이미지들은 작가 개인의 감성과 정서를 바탕으로 삶과 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여 나타낸 것으로 작가 고유의 독특한 예술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인 도시의 모습을 통해 유동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유희와 삶에 대한 경외심과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도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시선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다종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한 유동문은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까뉴회화제, 상파울루비엔날레, 외 다수 국제전에 초대되었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석주미술상 심사위원, 오지호미술상 운영위원 등의 주요심사를 맡았다. 또한 상명대 학장을 역임하고 현재 상명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최영기 예술 유작 전시 최영기(51응미줄/1924-1979)

최영기 동문의 유작 전시회가 지난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에 위치한 연지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의미가 남달랐다. 최동문의 고향인 정읍에서 열리는 유작 전시회이기 때문이다. 전시에서는 최동문의 한문서에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서예작품은 최동문의 열정과 세월을 보여 주는 듯 하얀 화선지 곳곳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가족들은 복원과 탈색을 의뢰할 수 있지만 최동문의 예술혼을 그대로 보여 주기 위해 원본을 전시장에 공개했다. 서예 작품 외에도 최동문이 가족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

지도 전시하였다. 최동문의 여동생인 최영임 씨는 "항상 베레모를 쓰고 계시는 오빠의 모습은 나의 삶과 늘 함께한다. 애석하게도 3주 전 올케 언니께 오빠 서예전을 함께 개최하자고 약속했는데 타계하셨다. 오늘의 서예전에 함께 하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며 "사랑하는 오빠, 늦게 서예 작품을 세상에 알리게 돼 죄송하다.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동문은 1924년 정읍에서 태어나 1979년 별세했다. 해방 후 모교 응용미술과를 졸업한 최동문은 서울대학교 배지의 중앙 상징인 정문 조각 로고를 최초로 도안했으며, 대한민국 훈장도 도안했다. 대한민국 교통부 관광과 특수 고위 공무원 등으로 근무했다.

無我行(무아행) 오수환(65회화)

오수환 동문의 기획초대전 '無我行(무아행)'이 대구 북구 영송로에 위치한 대구보건대학교 인당뮤지엄에서 지난 11월 20일부터 오는 2023년 1월 10일까지 열린다. 철학적 사상을 바탕으로 추상 세계를 그려내는 한국 작가 오동문의 이번 전시는 대구에서 20여년 만에 열리는 개인전으로, 인당뮤지엄의 로비와 5개 전시장에는 총 42점의 대형 작품들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2점을 연결한 독특한 작품과 인당뮤지엄의 장점인 높은 천고와 기운이 생동하는 화폭이 만나 발하는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기획초대전은 인당뮤지엄 홈



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 또는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관계자는 "오수환 작가 기획초대전은 VR 전시와 전시 영상,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시공간 제약 없이 전시를 감상하고 작가에 관한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동문은 1969년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로 졸업한 뒤 국내외 개인전 및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1996년에는 김수근 문화상을 수상했다. 오동문은 현재 서울여자대학교 아트앤디자인스쿨 현대미술전공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여기, 일어서는 땅 임옥상(68회화)

임옥상 동문의 대규모 신작 설치 작업을 선보이는 전시 '임옥상: 여기, 일어서는 땅'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오는 2023년 3월 12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리얼리즘 미술에서 출발, 대지미술, 환경미술로까지 영역을 넓혀오고 물, 불, 흙, 철, 대기 등 물질적 요소를 작품 소재로 주로 사용해 온 임동문의 현재 활동과 작업을 살펴보고자 기획된 자리다. 이번 전시에서는 서울관 6, 7전시실과 야외 전시마당에 대규모 설치작 6점을 포함, 40여 점의 작품과 130여 점의 아카이브 자료가 소개된다. 작가의 신작 중 하나인 12m 높이의 대규모 설치 작업 '여기, 일어서는 땅'(2022)을 전시의 중심에 놓고 6전시실에 설치작품 '흙의 소리'(2022), 전시마당에 설치 작품, 7전시



실에 평면작품을 위치시키며 작가 초기 회화와 최근작을 '깎지 끼듯' 마주 이어 구성했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앙굴렘 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1년 문혜진홍원 미술회관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다수의 개인전을 열었고, 1990년대 들어서는 1995년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등 국제미술행사들에 초대됐다. 이후 임동문은 '미술관 밖' 미술실천적 참여프로그램, 이벤트, 설치, 퍼포먼스 등을 다수 기획진행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공공미술, 공공프로그램을 거쳐 근래 파주 장단평야의 실제 논에서 환경미술 혹은 대지미술, 현장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Dreaming 안말환(76회화)

안말환 동문의 개인전 'Dreaming'이 지난 10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에 위치한 The Stay Healing Park에서 열렸다. 안동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나무'의 시선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삶의 이상향을 꿈꾸며 나무는 작가 자신이며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말한다. 살아온 생애의 기억과 그 세월의 자취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의 덕목으로 다가오는 나무의 본성들을 떠올리면서 나무들의 대화를 형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안동문은 "나의 나무들은 혼돈 속에서 불안하고 지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신선한 숲,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고 깨끗한 당신의 호흡"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안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45여회의 개인전과 400여회의 그룹전에 참여하였으며 대한민

回歸本能(회귀본능) Homing Instinct 이민주(76회화)

이민주 동문의 초대개인전 '回歸本能(회귀본능) Homing Instinct'이 검재 정선미술관 초대로 지난 12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의 미래와 현대화를 위하여 평면, 입체, 설치,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실험을 해 오고 있는 이민주 동문이 한국화의 본향, 즉 뿌리를 찾는 회귀의 길을 나섰다. 1980년 고구려벽화를 프레스코바탕에 그린 작품을 비롯해 필이 있고 묵이 있으면 명작으로 평가되던 옛 화론에 색을 더하여 먹 자체에서 우러나 오는 오채와 더불어 다양한 채색을 결합하여 화면에 현현한 오십여 점의 작



품들을 선보였다. "검재와의 공명"이라는 제 2주제로는 검재가 그렸던 수성동계곡을 되찾아 본 '수성동의 빗소리'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한편 이민주는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경희대 및 대학원에서 강사 및 겸임교수를 하면서 후학들을 지도해왔으며 한국미술협회부이사장 및 한국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또한 장애인아트페어 심사위원장을 맡아 유망한 화가들을 발굴한 바 있다. 현재 한국·인도 현대작가교류회 회장을 맡아 두 문화의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Where You Stand 이기봉(77회화)

이기봉 동문의 개인전 'Where You Stand'가 지난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제갤러리 서울점 K1, K2와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점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동문은 회화와 설치를 넘나들며 세계의 본질을 이루는 '구조와 흐름'을 탐구해온 작가다. 이번 전시에서 이동문은 거친 표면에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 발췌한 텍스트를 새겨넣은 신작을 발표했다. 캔버스 뒷면으로부터 쌓인 비트겐슈타인의 텍스트는 모호한 풍경



뒤에서 또 다른 형태의 막이 됐다. 이동문은 서울 점과 부산점에 비트겐슈타인의 텍스트를 활용한 'A Thousand Pages'라는 설치작품도 한 점씩 출품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고, 1986년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뒤 전 세계를 무대로 전시를 이어가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독일 ZKM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고, 2021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의 단체전에서 작품이 소개되었다.

무한구체 신한철(81조소)

신한철 동문의 개인전 'Infinite Sphere: 無限球體'가 지난 1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서울 용산구 G컨템포러리갤러리에서 열린다. 조각이 갖는 매스의 중력을 떨쳐내고 비눗방울 거품처럼 방울방울 가볍게 걸려있는 크고 작은 집적(아상불라주)된 구의 형태들과 감각적인 밝고 명쾌한 원색의 칼라로 투명하게 입혀진 아름다운 구체들은 일상 공간의 풍경을 감각적인 유희의 체험 공간으로 이끈다. 마치 분자구조처럼 여러 개의 구가 집적된 작품에 이르



면 무수한 접점을 생성하며 구에 비치는 모든 이미지를 그 속으로 빨아들인다. 중력의 법칙을 조롱하듯 경쾌하고 가볍게 공중으로 향하고 있다. 신동문은 모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 약 250여회와 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미술관, 금호미술관, 전쟁기념관, 서울대병원, 홍콩 하버시티, 롯데호텔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후원광고

김소선
초대개인전
2023.1.6 - 1.18

갤러리 내일
2023. 1. 6 - 1. 18
11am-18pm 월휴관

pairs쌍-뎡구 윤동천(81회화)

윤동천 동문의 개인전 'pairs쌍-뎡구'가 지난 10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서울 통의동에 위치한 갤러리시몬에서 열렸다. 윤동문은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들에 내재한 뜨거운 갈등을 차가운 해학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우화와 속담의 은유적인 문구는 작품에 사용된 재료가 지닌 직관성과 어우러지며 동시대에 벌어지는 관계의 충돌과 희망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환경문제, 문화에 대한 열정, 광복한 전쟁의 열기, 자본주의의 냉혹함과 인간성 말살의 잔혹함 등을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윤동문



등 국내외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윤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에서 30년간 교수로 재직하고 올해 정년퇴임한 후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다수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30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1992년에는 국제 아시아 유럽 비엔날레에서 금상을 수상하였으며 영국 대영박물관

Where must we go 서동수(86서양)

서동수 동문의 개인전 'Where must we go'가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7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세 번째 개인전에서 서동문이 그려내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나 (Where must we go)'는 대상 자체가 눈에 보이는 사물만이 아닌 내면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자아가 될 수도 있으며 그 본연의 본질을 추구함을 보인다. 작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자신과 관계성을 가지는 물성과 페인팅을 벗 삼아 그만의 회화적 자율성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보이는 다각적 시선의 형상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과 작가가 이루어 낸 선과 터치는 창조적인 욕망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기틀이 된다. 작가는 사물을 통해 묘한 감을 주거나 그가 지향하는 바탕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그 너머의 느낌을 한순간에 포착, 작품 속 새로운 이미지로 탄생시켜나가고 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자유로운 사물의 흔적이 어우러진 시적 단상과 예술적 의미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서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3회의 개인전과 10여 회의 단체전에

Memories of the Wind 김덕기(89동양)

김덕기 동문이 올해는 물위의 돛단배를 주소재로 다룬 개인전 'Memories of the Wind'를 지난 11월 17일부터 오는 1월 26일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소울아트스페이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여행시리즈를 중심으로 정원(가족)시리즈와 특별히 아이패드 드로잉 작품을 최초로 공개하는 동시에 올해 초 공개하자마자 매진을 기록한 NFT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총30여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김동문이 작업한 캔버스 위에는 태양 아래 선명하게 자리 잡은 색채가 눈에 띈다. 순수한 색채와 선명한 색채, 단순화된 원색이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 여러 색을 섞어서 새로운 색, 연한 색감



포항, 인천, 파주, 부산, 제주, 여주 등에서 개인전을 열고 다수의 단체전 및 초대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이 아닌 원색 물감 그대로를 활용해 작품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또 그의 작품에는 인물은 작지만 주변 풍경은 크다 못해 거대하다. 캔버스 위에 놓인 인물은 작지만, 인물의 감정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해 보인다. 대부분의 작품에는 인물이 등장해 전체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인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까지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서울, 대전에 참여하며 활발히 활동중이다.

욕망의 전조 류지선(89서양)

류지선 동문의 개인전이 호암교수회관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오는 23년 1월 29일까지 열린다. "한알의 모래속에 세계를 보며, 한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는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순수의 전조의 첫 구절이다. 류동문의 전시제목 '욕망의 전조'는 앞선 시의 제목을 패러디 한 것이다. 싱그러운 과일들은 대체적으로 풍요와 행복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자연의 시간이나 공간과는 아무 상관없이 쌓여있는 과일들의 모습은 류동문에게 낯설음이자 지나친 욕망의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진주교대 미술교육과에 재직 중이다.

전조로 다가온다. 각각의 과일은 사실적이나 그것이 모여있는 모습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과일들 사이로 솟아있는 석상이나 소나무들은 상대적인 크기의 부조화로 인해 비현실의 느낌을 한층 강조하며 일종의 풍경으로 만든다. 다시말해 작은 과일은 욕망을 키워드로 하는 세상을 담고 있다. 류동문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현재 진주교대 미술교육과에 재직 중이다.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 이만나(89서양)

이만나 동문의 개인전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The Landscape that is no more There)'이 서울 종로구 선화랑에서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어졌다. 이번 작품전에 이동문은 최근 그린 유화와 아크릴화 25점을 출품했다. '더 이상 거기에 없는 풍경'이란 제목을 내건 것은 도시개발로 인해, 또는 새로운 정비작업 때문에 어느 순간 '확'하고 스러져간 풍경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데뷔 이래 풍경을 주로 그려온 이동문은 자신을 둘러싼 외부세계를 접촉하며 간직하게 된 기억들과 마음의 일렁임을 따라간다. 작가는 보이는 대상



했으며,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교에서 디플롬과 마이스터술러 과정을 마쳤다. 그간 1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의 '겉으로 드러난 풍경'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자 한다. 즉 바라보았던 풍경의 또다른 세계, 또는 감춰진 이면을 그리고자 하는 것 따라서 이동문의 작품은 자신의 속마음을 뒤집어 보여준 내면의 풍경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조형예술대학교에서 디플롬과 마이스터술러 과정을 마쳤다. 그간 1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 채현교(90서양)

채현교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12월 16일부터 29일까지 하남문화재단 주관 및 스타필드 후원으로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하남 센트럴아트트리움갤러리 작은 미술관에서 개최됐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수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채동문은 "눈 내린 새벽 인적 없는 뒷산 풍경을 바라보다 고요하고 신비로운 물 속 크리스마스 풍경을 떠올렸다. 설, 추석 명절과 제사가 파티이던 어린시절, 삼촌이 함박웃음을 웃으며 사다준 인형과 밤사이 머리맡에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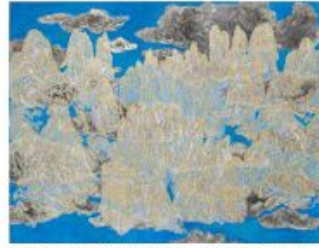


두 등에서 11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다툼 아빠의 위인전 한질은 이름도 신비한 크리스마스설레는 기억이다"며 그 추억이 담긴 작품전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1996년 관훈갤러리를 시작으로 인터컨티넨탈호텔코엑스 아시아라이브갤러리, 갤러리무이, 사이아트갤러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갤러리, 한국경제신문 한경갤러리, 갤러리

유어산수(遊於山水) 박소영(92동양)

박소영 동문의 초대전이 유어산수(遊於山水)- '구름 위에 노닐다'라는 주제로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갤러리 도스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에서 그동안 발표해 온 자연 안에서의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자연과 벗하여 소요유(逍遙遊)하고자 하는 연계선 상에서 전통적인 산수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전통 회화를 작업의 근간으로 삼고 내가 체험한 공간과 관념적인 공간을 실경과 넘나들면서 전통 산수화의 전형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한 부분을 하늘과 구름 형상 배경에 위치시켜 가상공간을 창조하고 있다. 한편 박동문은 모교 동양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



사졸업,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졸업하였다. 지금까지 서울, 부산, 미국 등 국내외에서 17회의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다수의 국내외 그룹전과 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 대한민국주상하이문화원, Oregon Health and Science University, Portland Community College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현재 고려대, 국민대, 서울교육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Tie up 김종수(93서양)

김종수 동문의 세 번째 개인전 'Tie up'이 12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갤러리인사아트 1층과 지하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의 'Persona' 연작의 세 번째 시리즈로서 묶임과 연결을 주제로 다양한 의상을 소재로 한 초상작품을 선보인다. 대표작인 'Trench boy' 연작을 통해 의복의 착장이 주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집중하고 다양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연결의 착장방식을 통해 상징화하였다. 자유와 구속 사이에서 다양한 페르소나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제로 한 사실적 기법의 초상작품들이 의상을 통한 의인화를 거쳐 표현되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의상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영국 Central Saint Martins에서 여성복을 전공하고 파리의 Jean Paul Gaultier에서 패션디자이너로 근무한 바 있다. 김동문은 현재 패션을 주제로 한 패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플루리버스: 내밀한 전도 최수양(94조소)

최수양 동문의 개인전 '플루리버스: 내밀한 전도 Pluriverse: Innermost Inversions'가 지난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용산구 회나문로에 위치한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최동문이 만드는 미완의 실체들이 여러고 작은 인간의 몸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체에 팽배한 고정관념을 전복하고 유연한 인식의 틀을 건넌다는 여정의 한 장을 관객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최동문이 조형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절대자의 위치에서 내려와, 여러 중간 매개 변수의 역할을 작품 안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살



핀다. 한편 최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외에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해 왔다. 갤러리 에스피에서의 '플루리버스: 내밀한 전도'를 포함하여 '언폴드'(2021, 학교재, 서울) '몸을 벗은 사물들'(2017, 두산갤러리 뉴욕) 등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다수의 국내 단체전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국립현대미술센터, 덴마크 브란츠미술관, 파리 알 생피에르미술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현대미술 특별전 등 다수의 해외 주요 기관이 개최한 기획전에도 참여했다.

획획의 기억 홍성용(97동양)

홍성용 동문의 개인전 '획(劃)의 기억'이 지난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한 갤러리아수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작품에서 홍동문은 매일매일 켜켜이 쌓이는 감정, 기억의 형상을 몸의 움직임을 통해 쓰고 그리고 다양한 색감으로 레이어를 쌓아간다. 시차각 존재하는 화면들은 갈아내고 다시 쌓고 갈아내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기억과 감정들이 크고 작은 면과 선들로 뒤섞여 조화를 이룬다. 어떤날은 "흥" 이나서 화면안에서 몸



을 휘저으며 춤을 추고, 또 어떤 날은 먹먹한 마음으로 붓을 들고 화면과 마주한다. 완성된 레이어 위에 중첩해서 덮어지고 갈아내는 일련의 반복되는 과정들은 화면과 작가의 관계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함께한 정세원의 인터랙티브 사운드는 VR가상공간에서 진행되는 드로잉이 현실과 이어지는 접점으로 작가의 움직임에 실시간으로 반응하여 여러겹의 사운드들이 중첩되며 또한 구조적으로 발전한다.

선의 형태 CURVED 윤이랑(05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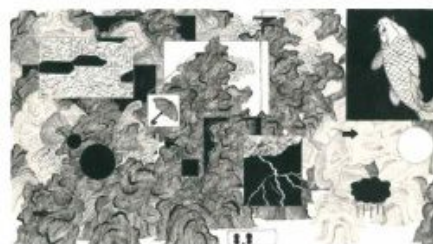
윤이랑 동문의 개인전 윤이랑 개인전 '선의 형태 CURVED'가 인사동 KCDF갤러리에서 지난 11월 16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되었다. 2022년 KCDF 공예디자인 공모전 신진작가 부문에 선정된 윤동문은 금속 판재가 가진 구조적 특성 중 단면이 그리는 선에 주목한다. 윤동문은 1~1.2mm 두께의 금속 판재를 사용해서 파이프 형태를 만들고 선을 휘거나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도록 하여 기물을 완성한다. 이번 전시는 곡선과 그 곡선의 형태로 인해 만들어진 생동하는 경계면의 변화가 돋보이는 금속 오브제 15여 점을 선보인다. 공진원



빛이 있는 공간(Lkate갤러리 2016)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해왔다.

16:9 김기홍(15동양)

김기홍 동문의 개인전 '16:9'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인천 중구 율목동 전시관 응접실에서 열렸다. 전시회 제목인 '16:9'는 동영상 화면의 가로:세로 비율을 뜻한다.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동영상 등 미디어환경에 익숙해진 현대인의 의식·행동 변화를 동양회화 작품으로 표현했다. 전시에는 수묵화 19점이 출품됐다. 모든 작품의 가로:세로 길이는 각각 32cm, 18cm로 16대 9 비율이다.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도 대해 "현대인은 인터넷 사용자 환경(UX/UI)과 동영상 플랫폼 환경에 익숙해지고 미디어환경에 따라 버튼을 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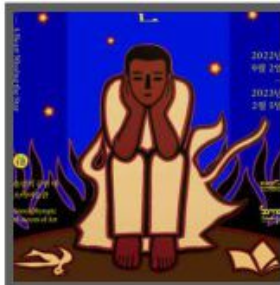
릭하거나 스크롤을 내리면서 영상을 연속적으로 본다"며 "사람들은 인터넷환경을 통해 대중의 행동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현대인의 생활 변화를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출생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했고 2018년과 올해 각각 서울, 경기도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1월의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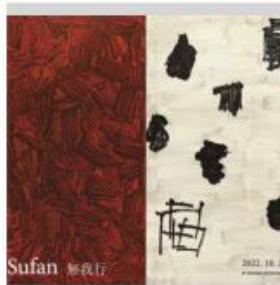
은빛 날개의 꿈과 기쁨

엄태정(58조소)
8.24 - 23.2.26
아라리오뮤지엄



별을 그리는 마음

이만익(57회화/1938-2012)
9.2 - 23.2.5
소마미술관



無我行

오수환(65회화)
10.20 - 23.1.10
대구보건대 인당뮤지엄



임옥상 : 여기 일어서는 땅

임옥상(68회화)
10.21 - 23.3.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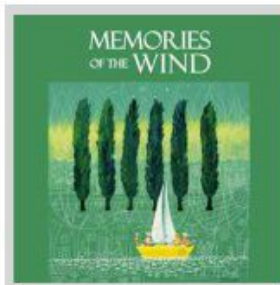
육망의 전조

류지선(89서양)
11.1 - 23.1.29
호암교수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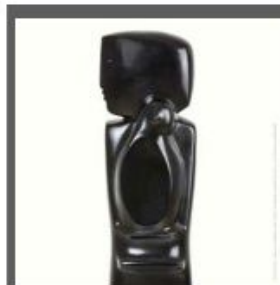
무한구체

신한철(81조소)
11.11 - 1.10
G컨템포러리 갤러리



Memories of the Wind

김덕기(89동양)
11.17 - 1.26
소울아트스페이스



새벽의 노래

최종태(54조소)
12.1 - 23.1.8
GANA ART NINEONE



연적 硯滴, 물들다

허승희(03동양)
12.14 - 23.1.7
모리함전시관



물들다

신수진(91서양)
12.14 - 23.2.4
메타갤러리루나



Owl. 침묵하는 응시

김남표(91서양)
12.15 - 23.1.14
소노아트갤러리



필과 매의 노래

정종미(76회화)
12.16 - 23.1.8
정종미갤러리



Fe-공중산수

김종구(84조소)
12.17 - 23.2.27
스텔라 갤러리



이강자 2022

이강자(71조소졸/1946-02)
12.18 - 23.1.18
호암교수회관



유인수 초대전

유인수(66회화)
12.20 - 23.1.5
Gallery U.H.M



본질의 태도

손문일(00동양)
12.23-23.1.20
스페이스사직



삼세대서세옥(1929~2020)

서세옥(46회화)
12.23 - 23.1.20
리만머핀 서울



녹색 불을 다루는 법

최나무(97서양)
12.27 - 23.1.8
갤러리 담



김소선 초대전

김소선(63조소)
23.1.6 - 23.1.18
갤러리 내일



장주연 초대전

장주연(12동양)
23.2.1 - 2.7
갤러리 도스